

광주매일신문 제8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3강 '팬데믹과 AI의 만남'

이경상 K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 “디지털 기술 파괴적 성장 속 실리 챙겨야”

### 4차 산업혁명은 물질에 가상·지능까지 결합 혁신사업 잇단 출현...변화에 적극 대응하길

“급변하는 사회를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광주매일신문 주최로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8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3강에서 이경상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팬데믹과 AI의 만남, 미래 블루오션의 지형이 바뀐다!’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 교수는 이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로의 전환이 두 배 이상 가속됐다”며 “모든 산업이 디지털화되는 현재, 기존 사업체들간의 비즈니스 모델 경쟁이 시작됐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어 그는 기존의 1.2차 산업혁명의 산물인 물질적 풍요로움과 달리 3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상’, 4차 산업혁명은 이전까지의 성과인 ‘물질’과

‘가상’에 ‘지능’까지 더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디지털화(Digitalization)’의 개념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첫 번째 혁신사업 사례로 모빌리티 산업을 언급했다.

자동차의 경쟁 방식과 시장 주도자가 바뀌게 된 배경에 대해 전 세계가 기후변화 위험에 직면했으며 이에 EU가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하고 한국도 ‘탄소중립 목표 40%’를 설정하는 등 시장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최종 목적으로 배송하는 물류의 마지막 단계인 ‘Last Mile(1.6km)’을 해결하는 자율주행차 ‘Nuro’의 시장 출현을 예로 들었다.

이어 두 번째 혁신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60세 이상 인구는 2015년 9억명에서 14억명으로



50% 가량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자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DIY Healthcare’가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 가운데 온전히 나의 건강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발전했고 ‘애플워치의 무체혈 혈당 체크 기술’, 끼고 있는 반지만으로도 심장 박동, 혈압, 수명 등 정보를 측정하는 ‘Oura ring’ 등이 발전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현 트렌드를 진단했다.

또한 이 교수는 오프라인의 위기로 기존 공연 방식이 전환되며 발전하게 된 ‘메타버스(MetaVerse)’ 산업과 최근 화두인 ‘카카오’,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의 제국주의, 이것의 대안으로 나타난 ‘D2C(Direct to Consumer)’ 사업을 연달아 혁신 사업 사례로 설명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코끼리를 만난 장님의 우화를 얘기하며 “초연결사회, 읍니체널,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 대상과 산업마다 부르는 용어가 다를 뿐”이라며 “본질은 여기에 있으니 어렵게 여기지 말고 빠르게 변화는 세계에 다가가서 성공을 쟁취하라”고 강조했다. /양시원기자



광주교정청, 코로나 예방 기부물품 전달

법무부 광주지방법정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부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은 오는 28일 제76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추진됐다.

전달식은 신용혜 광주교정청장장과 문귀례(법률선진신문, 학생법률신문 발행인·대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기증마스크는 서대천 홀리씨즈교회 담임목사(학생법률신문회장)와 문만식 목포·무안·신안 축협조합장(목포교도소 교정위원)이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기증했고, 광주교정청 소속 9개 교정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 청장은 이번 기부에 적극 후원해주신 서 목사 문 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장을 수여했다.

신 청장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계획에 맞춰 교정시설에서도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코로나19 예방 및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 화순전남대병원, 호스피스 바로알기 캠페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는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알기 캠페인’을 벌였다.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페인에서는 병원을 찾은 고객과 직원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스토리텔링 전 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홍보물 배부, 호스피스 유형(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안내 및 상담 등이 실시됐다.

또 6권역(광주·전남·제주) 호스피스 전문기관 공동 캠페인, 구례군 오일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호스피스’ 지원, 광주 서구보건소 호스피스의 날 행사 지원, 광주시 건강정책과와 연합 홍보 활동도 진행했다.

센터는 매년 개최했던 ‘호스피스·완화의료 후원 바자회’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소하고, 대신 10월 한달간 후원금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

후원금은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의료비, 생계비, 유자녀 장학금 지원 등 호스피스 발전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심현정 권역호스피스센터 소장(종양내과 교수)은 “암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우리나라에서 완화의료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용률은 매우 낮다”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 동강대, 재학생 5명 등 '도서 다독자' 시상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최근 도서관 2층 자료실에서 ‘제20회 도서 다독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동강대 도서관(관장 지혜련)은 올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서 대출 횟수가 많은 재학생 5명과 지역주민 1명, 다독 최우수 간호학과를 선정해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또 동강대 도서관은 도서 및 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1학기에 이어 10월25일부터 11월30일까지 ‘DU 독서토론 클럽’을 운영한다.

오는 22일까지 동강대 재학생이나 북구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독서토론 클럽 회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혜련 도서관장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다독자 시상을 비롯해 독서토론 클럽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 목포해양대 LINC+사업단 '링크루트' 전원 수상

목포해양대 LINC+사업단(단장 정창현, 이하 링크사업단)이 최근 ‘2021 산학협력EXPO 링크루트(LINC+Recruit, 모의 면접 프로그램)’에 참가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링크사업단은 20일 “2021 산학협력EXPO 링크루트에 참가해 항해학부 4학년 김세은 학생이 대상, 기관시스템공학부 4학년 김성운 학생이 최우수상, 항해학부 4학년 최산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주최, 한국연구재단 주관 행사는 ‘세상을 바꾸는 협력, 미래를 밝히는 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링크루트는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 참여 기업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면접을 실시해 현장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링크루트에는 4개 대학·산업체와 11명의 학생이 참가해 역량 평가, 면접 평가 순서로 진행됐다.

목포해양대 LINC+사업단에서는 3명이 참가해 전원이 수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정창현 링크사업단 단장은 “목포해양대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올려 기쁘다”며 “앞으로도 해양산업을 주도할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 동신대, 스마트에너지시티 산학협력 교류회

동신대학교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사업단은 최근 대학 중앙도서관 1층에서 ‘스마트에너지시티 산학협력 교류회’를 진행했다.

이번 교류회는 동신대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사업단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했으며 중흥건설, 빌딩포인트 코리아 등 스마트에너지시티 유관기업 10곳이 참여했다.

스마트에너지시티에 필요한 기술인 IoT, 인프라, 데이터, 서비스 트랙별별 기업들이 참여해 사업단과 함께 거둔 성과를 발표하고 체험 부스 등을 운영했다.

또 기업들의 주력 분야와 스마트에너지시티,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재만기자

## 서구 화정2동 '영양관리사업 상호협력' 협약

광주 서구 화정2동 행정복지센터가 보건복지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따라 돌봄취약 노인 가구에 식사와 영양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쌍촌종합사회복지관과 '영양관리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돌봄취약 노인가정 영양관리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해 식사 지원이 필요한 중증 돌봄노인과 장애인 등 30여 세대를 대상으로 매주 식사 지원과 영양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 협약 내용은 ▲노인맞춤돌봄 생활관리사를 통한 반찬 전달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돌봄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착한가계와 자활사업단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동네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



라, 불규칙한 음식섭취에 대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 통합돌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상관 화정2동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문으로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가 힘들었는데 곧 다가올 위드 코로나시대를 맞아 영양음식을 제공하고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 어르신들이 매우 만족해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연재원기자



## 광산구어린이급식센터 'MOM편한 급식' 성료

광산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양은주 호남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9월6일부터 10월19일까지 구립 행복나무어린이집 외 7개 어린이집·유치원의 부모 32명을 대상으로 부모 현장 참관 프로그램 ‘MOM 편한 급식’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센터 전문 영양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급식 현장을 부모가 직접 방문·관찰하도록 하여 어린이 급식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

키고자 진행했으며, 어린이 영양·위생교육 및 조리실 순회방문지도 참관, 배식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부모는 “어린이 급식관리에 대해 궁금했는데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고, 광산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철저한 영양·위생관리 덕분에 부모 입장에서 안심된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완도경찰, 아동안전지킴이집 감사장 수여

완도경찰서는 지난 18일 코로나19 장기화 속 경찰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아동안전지킴이집 5개소를 선정, 감사장을 수여했다.

완도읍에서 합기도학원을 운영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 김근희 씨는 “사회적약자인 아동 및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소희 완도경찰서장은 “완도경찰은 지역사회 협력 체제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실질적인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기자



청정솔루션·목포금호미술관 마스크 기부

(유)청정솔루션(대표 이모백)과 목포금호미술관(관장 이상진)이 최근 목포시 대성동에 마스크 3천매를 기부했다.

지난 2월에도 마스크를 기부했던 이모백 대표와 이상진 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나눔을 실천했다”며 “앞으로도 대성동 취약계층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길용 대성동장은 “모두 힘든 시기에 물품을 기부해줘 감사드린다”며 “마스크는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 결혼

- 황현구·신정아씨 장남 두진군, 진규하(프레스인 광주전남본부 국장)·심이화씨 장녀 리나양=11월13일(토) 오후 2시30분 서울 뮤지엄웨딩홀(전쟁기념관) 1층 평화홀, 피로연 10월23일(토) 오후 5시30분-8시 여수 쇼호텔 디오션호텔 1층 에메랄드홀.
- 오복교(전 법무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박성예씨 아들 윤준군, 김영록·채종덕씨 딸 가람양=23일(토) 낮 12시 광주 서구 풍서좌로 제이아트웨딩홀 1층 아모레홀.
- 하석근·김원자씨 아들 재호군, 백진기(전북 남원 서울가정의학과 원장)·최옥씨 딸 가은양=23일(토) 낮 12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성당.
- 김중모(전 해대 타이거즈 코치)·서경화씨 아들 승현군,故안용만·김마리아씨 딸 진양=23일(토) 오후 5시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동편 B1광명역사건변신웨딩홀.
- 김희정·김귀남씨 아들 관홍군, 김용연(신공산업 대표)·황금씨 딸 서영양=24일(일) 낮 12시30분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드메르웨딩홀 4층 라비엔홀.